

# 2004년도 교육통계연보(DB)를 이용한 국내 정보보호 관련학과 설치 현황에 관한 연구

\*\*김 종 하 \*김 태 성 \*\*김 민 정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부교수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kimjh, kimts, mismj}@chungbuk.ac.kr

## A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2004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Jong-Ha Kim \*Tae-Sung Kim \*\*Min-Jeong Kim

### 요 약

해킹 및 각종 바이러스 등의 정보화 역기능이 급증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정보보호에 대한 요구는 각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보보호를 책임질 정보보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국내 정규교육기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왔다. 정보보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그 동안 정규교육기관(전문대, 대학교, 대학원)에 개설된 정보보호 관련학과의 현황 및 성과 측정이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정보보호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정규교육기관에 대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DB)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보호전공 과정을 이수한 정보보호인력이 시기적절하게 정보보호 관련분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I. 서론

정보화 역기능(해킹, 바이러스 등)은 국가·사회·개인에 걸쳐 막대한 피해와 손실로 직결된다. 국가적으로 고도의 지식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커다란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보보호를 실천할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나 방안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다[3]. 그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정보보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정규교육기관에 정보보호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2년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향후 정보보호산업의 성장과 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 정보보호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보호인력 공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해 수급불일치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6]. 이러한 정보보호인력 수급불일치 문제에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연 대학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정보보호인력을 양성 할 필요가 있다[2].

국내의 정보보호 관련학과는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각 대학에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동안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과과정 모델 개발, 실습실 구축, 교원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진행되어 왔다[4].

국내 정보보호 관련학과가 설치된 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분석 및 성과 측정을 통해서 향후 정보보호

인력의 원활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규교육기관(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설치된 정보보호 관련학과에 대한 현황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보보호 관련학과가 설치된 교육기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통계연보(DB)를 이용하였으며, 정보보호전공 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의 개설연도 및 연도별 입학생수, 졸업생수(학위취득자), 학년별 재적학생수를 분석하였다.

II장에서 연구의 주된 방법인 교육통계연보(DB)를 간략히 소개하고, III장에서는 정보보호전공 과정이 설치된 정규교육기관의 현황에 대해 분석한다. IV장에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연구의 개요

#### 2.1 연구의 방법

국내 정보보호전공이 설치된 정규교육기관 현황을 파악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DB)를 이용하였다.

교육통계연보(DB)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의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전수 조사한 학교기본통계와 주요 업무통계 정보를 담은 것으로 19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연도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25개 분야의 350개영역 총 4,000여 개의 세부 항목